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2호 [루게 제24605호] 주제 103 (2014)년 7월 11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국제  
비행장 항공역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  
서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  
장인 룡군중장 마원춘동지  
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강기섭동지, 립  
광웅동지를 비롯한 민용  
항공총국의 일군들이 맞  
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 7월 새로 건설한  
평양국제비행장 1항공역사  
를 현지지도하시면서 2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2항공역사의 모든  
시설들을 현대적인것으  
로 갖추고 봉사시설들  
을 특색있게 건설하며  
봉사활동을 잘하기 위  
한 준비사업을 지금부터  
짜고들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면서 봉사활동을 개  
선하기 위한 기구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과업  
과 방도들을 밝혀주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주  
변에 호텔과 버스정류소를  
비롯한 여러 봉사시설들도  
더 건설하며 항공역이  
자리잡고있는 순안지구의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역사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  
륭히 건설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  
을 주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군인건설  
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2항공역사  
건설이 75%계선에서 다그쳐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물  
조감도, 전개도, 평면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2항공역사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  
자들이 당의 의도대로 2항공역사  
건설을 잘하고있다고, 마음에 든  
다고, 그동안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건설을 마무리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국제  
비행장 항공역은 평양의 관문, 우리  
나라의 얼굴이나 같다고 하시면서  
2항공역사를 건축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  
모에 어울리는 로동당시대의 자랑스  
러운 건축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건축에서도 주체성을 철저히 고  
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항공역사를 건설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와 다른 나라의 좋은것들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민족성이  
살아나게 마감하여야 한다고 지시  
하시였다.

항공역사의 도착홀과 출발수속홀,  
출발대기홀, 휴게실, 면담실, 식사실  
등을 려객들의 편의를 최상의 수준에  
서 보장하면서도 건축미학적으로, 조  
형예술적으로 손색이 없게 건설하여  
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자면 시공에서 기술규정과 공  
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모든 요  
소요소를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요  
구, 정서와 미감에 맞게 세계적인 수  
준에서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국제  
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을 제기일에  
끝내기 위해서는 군인건설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에서 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  
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  
국제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은 당에서  
특별히 관심하는 대상이라고 하시면  
서 군인건설자들이 계획된 공사를 질  
적으로 잘하여 평양국제비행장 항공  
역을 선군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완전무결하게 건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지도반









# 고 전병호동지의 장의식 진행애 도 사

조선인민군 육군대장이며 조선인민군부장장비관 명예판장인 전병호동지의 장의식이 10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되었다.

장의식장인 서창회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정에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를 받들어 군수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친 로혁명을 잃은 비애에 휩싸여있었다.

장의식에는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를 비롯한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과 당, 무력기관, 내각, 국방공업부문, 평양시당 일군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열에 서있었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유가족들이 고 전병호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고인의 령구가 발인되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령구에 들어 총1》 하였다.

령구차는 애국렬사릉을 향하여 떠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각별한 사랑

과 은정속에서 유능한 일군으로 성장한 전병호동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시기 전진승리를 앞당기고 우리 당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위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셨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으로 내세워주시고 자위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속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서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도록 결을결을 세심히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정을 이시어 로혁명을 위해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면서 그가 백두산철세위인들끼리 국가공업부문에 쌓아올린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길에 이 시 삶에 빛내어나가도록 따듯이 보살펴주시었다.

그러면서 수도시민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전병호동지를 잃은 애석한 마음을 안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령구차는 애국렬사릉에 도착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경례식이 진행되었다.

애국가 주악된 다음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현영철 동지가 애도를 하였다.

추도곡이 울려지고 조총이 발사되는 속에 고인의 유해가 묘지에 안치되었다.

고인의 유가족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흠을 덮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묘에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인민무력부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고 전병호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전병호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오늘 우리는 커다란 슬픔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충직한 혁명적 전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귀중한 로혁명을 위한 전병호동지와 영결하게 됩니다.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 온 전병호동지는 그렇게도 넓은전진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며 심장의 고통을 멈추고 애석하게도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전병호동지와 영결하게 되는 이 비통한 시각 우리들은 백두산철세위인들을 굳게 믿고 따르며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온 귀중한 혁명동지를 잃은 크나큰 슬픔과 복받치는 애도의 정을 누를수 없습니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인 주제15(1926)년 3월 20일 자강도 전진군 빈민들의 가정에서 태어나 마광노의 피눈물나는 생활을 강요당하던 전병호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품속에서 당원으로, 유능한 일군으로 성장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동지는 해방직후 경위대에서 복무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군수공업에서 일하는 전병호동지를 무장으로 결사호위하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군수공업공정원, 부장, 기사장으로 사업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거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셨습니니다.

전병호동지는 전후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옹호하여 반당반혁명분자들들과 결별히 투쟁하였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받들고 군수생산보장을 위하여 밤낮이로 투쟁하였습니다.

동지는 1970년대 당의 기초조직시기부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높은 정치적인성에 의하여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부장, 비서의 중임을 지니고 주체적국방공업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동지는 제국주의편협체력의 반사회주의공공가 집권된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평도를 받들어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우리 조국을 인공 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는데 특출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전병호동지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철저히 무장하고 생명

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의 선군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었으며 참다운 혁명적 전사는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전병호동지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담심,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과 겸손한 품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전병호동지의 한생은 백두산철세위인들의 크나큰 정치적신뢰와 친애어사랑속에서 혁명적사의 가장 큰 영예와 값있는 삶을 빛내어온 보람찬 한생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전 빈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전병호동지에게 혁명의 군복을 입혀주시고 경위대에서 복무하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돌려주시었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경위대시절 전병호동지를 《꼬마동무》라고 사랑하며 안겨주시면서 총소는 법도 배우시고 당원의 영예를 지니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으며 자녀들이 무명에서 울리는 청도 맞까지 앉히고 료육도 보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류학을 마치고 돌아와 군수공업에서 일하는 전병호동지를 만나주시고 김정숙동지의 사랑속에서 조선로동당원으로서, 기사로 자라난 동무를 보니 김정숙동무의 생각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거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셨습니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전병호동지를 체계적으로 키워 군수공업 기사장으로 내세워주시었으며 동지가 일하는 공장에 여러차례 찾아오시어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군수공업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난 전병호동지에게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부장, 비서, 정치국 위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의 중임을 맡겨주시었으며 나라의 국방공업을 책임지고 한민 본래있게 일해보라는 크나큰 믿음과 용기를 안겨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창건 65돐경축 열병식을 통하여 우리의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다시한번 보여주셨다고 하시면서 우리로 인민적이며 위력한 무장장비를 가지게 된것은 군수공업부문에 오메드만

사업한 전병호동무의 공적이라고, 그가 이룩한 공적을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고 최상최대의 평가를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병호동지가 내각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받은 후에도 동지의 사업을 로해하시고 전병호동무가 내각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일을 잘하고있다고, 그는 우리 당에 충실한 일군이라는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70년대 신기의 기초조직시기부터 차신과 함께 일하던 일군들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전병호동무밖에 남은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서 열화같은 동지적사랑으로 현대 의학이 사형선고를 내리던 동지를 생사까지 지켜주시었습니다.

전병호동지가 난치의 병으로 고통 받고있을 때에 여러차례 다른 나라에까지 보내시어 치료를 받도록 해주시고 해마다 휴양을 보내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양과 색다른 식료품, 치료기구를 안겨주시면서 동지의 건강과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또 따뜻이 돌보아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동지는 오랜 기간 당과 혁명의 중요한 직책에서 생의 뚜렷한 흔적을 남길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병호 동 전 내각정치국 국장은 오래 동안 군수공업부문에 일하면서 조선인민군부장장비관에 전진한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만드는데 대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년로보장을 받고있던 전병호동지를 인민군대에 복귀시키고 육군대장의 군사정호를 수여하여주시었으며 인민군부장장비관 명예판장으로 사업하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공 지구위성 《광명성-3》 2호기 발사에 성공하였을 때에는 위성발사에서 성공하니 전병호동무가 생각났다고, 당의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이런 일군들이 있어 오늘의 성과가 이룩된것이라고 하시면서 동지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병호동무는 일하는것보다 그저 조선인민군부장장비관 명예판장으로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하시며 년로한 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온갖 치료대책과 은정어린 조치를 거듭 취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병호동지가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받으시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면서 장의를 국장으로 하도록 하시고 몸소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되시어

장의행사를 잘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었으며 동지의 평도를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장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배풀어주시었습니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뜨거운 동지적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혁명평도의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어찌저찌 전병호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어 군수공업부문에 오메 기간 사업하면서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지출수 없는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린 동지의 한생을 높이 평가하시었으며 전병호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총대동지라고 하시면서 그의 자료를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에 전시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그의 충실성을 새 세대들이 따라배우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전병호동지는 한생을 국방공업부문에 사업하면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특출한 공로로 하여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 2상과 김정일훈장, 공화국2중장영웅호와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많은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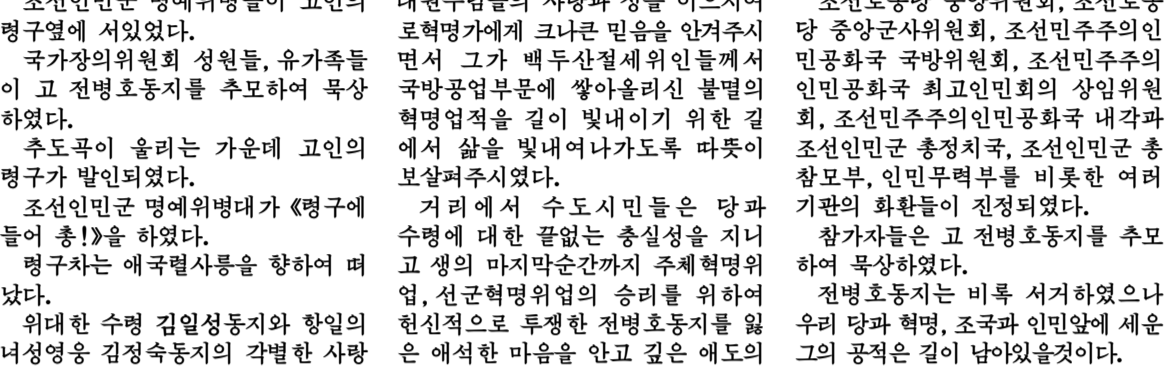
참으로 전병호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운 품에 안긴 그날로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백두산철세위인들의 하늘 같은 사랑과 배려속에서 혁명전사의 가장 값있는 삶을 누리셨으며 생을 마감 후에도 당과 수령, 인민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평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떨치고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은 전망이 펼쳐지고있는 때에 전병호동지와 같은 로혁명가를 잃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손실로 됩니다.

우리는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바친 전병호동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동지가 그토록 바라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감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삼천리강토에 통일번영하는 백두산통일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입니다.

전병호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동지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입니다.

고 전병호동지여!  
고이 잠들라,  
주제103(2014)년 7월 10일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국방공업부문 일군들 고 전병호동지의 령구를 찾아

## 조의 표 시

조선인민군 육군대장이며 조선인민군부장장비관 명예판장인 전병호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국방공업부문, 평양시당 당, 정권기관 일군들이 고인의 령구를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령구열에 서있었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유가족들이 고 전병호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객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를 높이 받들어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생을 바친 고 전병호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그들은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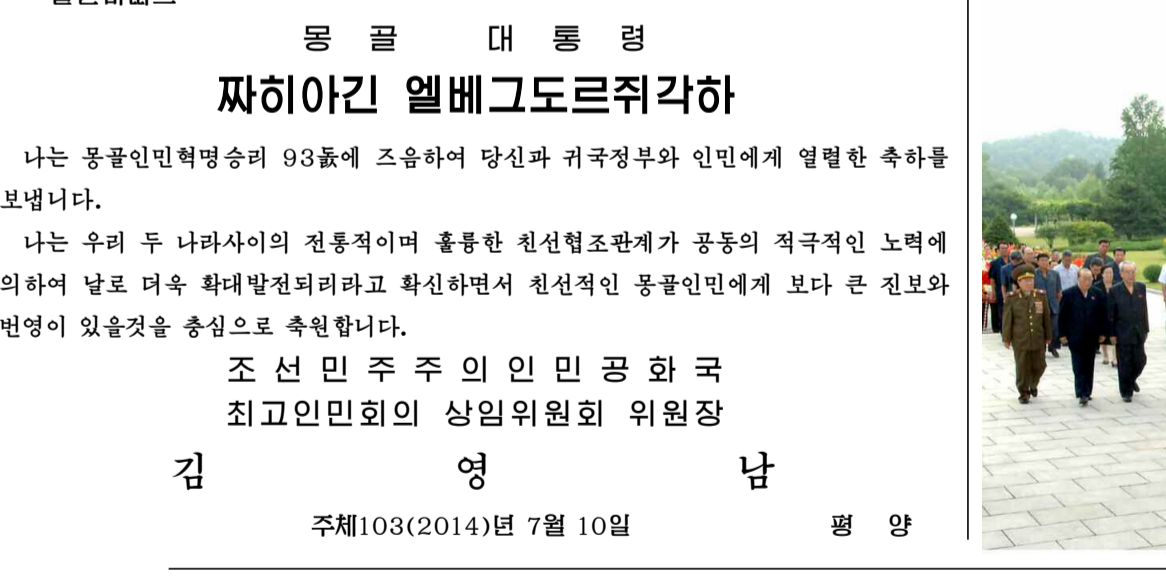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몽골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올란바타르  
몽골 대통령  
자하아긴 엘베그도르쥬각하

나는 몽골인민혁명당 93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이며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날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친선적인 몽골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확신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3(2014)년 7월 10일 평양



## 불멸의 령도업적교양으로 농업생산 적극 추동

### 각지 농촌경리부문 선동원들

농을 가지고 대중속에 들어가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드세게 벌이고있다.

농장의 선동원들은 여러차례 당 농장을 찾으면서 논벼 정보와 함께 논벼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어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농장원들의 귀에 속속 들어가게 구수 구수하게 들려주어 해설해주고있다.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인 최명화동무가 작업의 실천에 뛰어난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수렁님에 대한 그리움이 짙아지게 하였다. 농장원들은 가에 《우리 수렁님》, 《포전길 걸을 때면》, 《수렁님 같이신분 세상에 없습니니다》를 비롯하여

장항순동무는 여러차례 논장을 찾으면서 새로 만든 모래는 기계의 부속정도 바로잡아 주시고 평범한 제대군인분조에게 포기농사방법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어 아버지수령님의 의 모습은 농장원들에게 커다란 새기고 그 누구보다 분발하여 일하고있다. 매일 전투복을 두른, 세로씩 헤게까지 못하고서는 자리를 뜰수 없다는 비사한 각오로 가슴을 불태우며 당의 농업정책관찰에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발휘하고있는 그의 모습은 농장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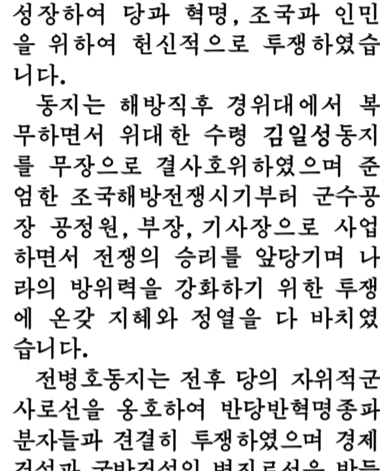
주장군 율형동무의 선동원들은 선동의 실패를 높이는데 힘을 넣으면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교양을 잘해나

##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화환 진정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위원회 제1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놓여있었다.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는 조문과 묘에 위병들이 서있었다.

화환진정들에는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도춘동지, 양형섭동지, 최용우동지, 최필원동지, 박범기동지와 일일출동대각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인 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수경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당, 무력, 정권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위원회 제1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놓여있었다.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이어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부대, 교육, 보건, 출판도기관, 평양시당, 정권기관, 기업소,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지인의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힘찬 혁명의 새벽길을 헤치시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투쟁업적을 돌이켜보며 목상하였다.

이날 김형직군대학과 사주군, 중앙군에 모신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에도 화환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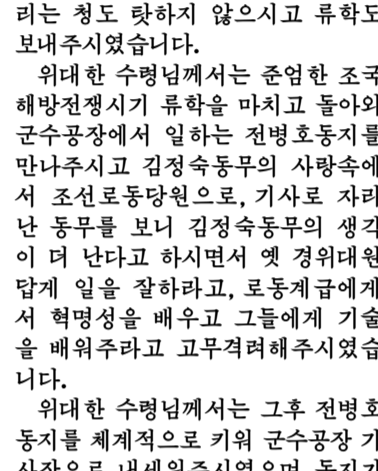
## 심금을 울리는 해설담화

덕성관관 조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관부들이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심과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당원한 석탄산투쟁에 한사 팔감이 펼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고있다.

당조직들에서는 사상교양사업계획에 따라 도서 《인민속에서》에 대한 독보사업과 연구 발표모임, 영화보현학습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고있다.

그리고 초급일군들과 선동원들을 잘 준비시켜 그들이 당원들과 관부들속에서 아버지수령님의 이념위업의 숭고한 리념과 인민사랑의 고매한 덕성에 대한 해설담화를 계기와 공정에 맞게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당장에 내려간 초급당위원회에 대한 독보사업에 관부들이 받아안은 자애로운 아버지사랑과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위원회 제1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놓여있었다.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이어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부대, 교육, 보건, 출판도기관, 평양시당, 정권기관, 기업소,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지인의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힘찬 혁명의 새벽길을 헤치시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투쟁업적을 돌이켜보며 목상하였다.

이날 김형직군대학과 사주군, 중앙군에 모신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에도 화환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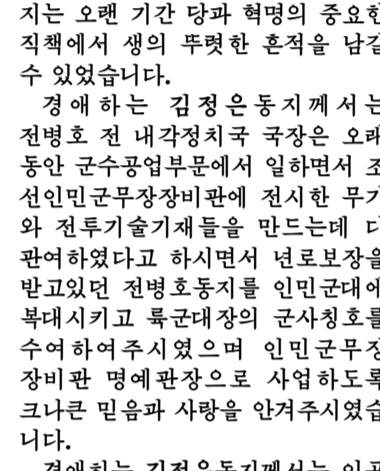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온 강산이 녹고있는 지금 각지 농촌경리부문의 선동원들은 수렁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교양으로 대중을 당면한 영농전투에 추동하기 위한 선동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업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원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선동원들은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들끓는 포전에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교양을 화신신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이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릴데 대하여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율형동무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위원회 제1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놓여있었다.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이어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부대, 교육, 보건, 출판도기관, 평양시당, 정권기관, 기업소,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지인의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힘찬 혁명의 새벽길을 헤치시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투쟁업적을 돌이켜보며 목상하였다.

이날 김형직군대학과 사주군, 중앙군에 모신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에도 화환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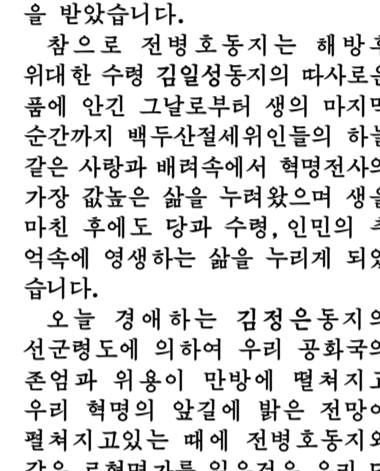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온 강산이 녹고있는 지금 각지 농촌경리부문의 선동원들은 수렁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교양으로 대중을 당면한 영농전투에 추동하기 위한 선동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업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원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선동원들은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들끓는 포전에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교양을 화신신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이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릴데 대하여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율형동무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위원회 제1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놓여있었다.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이어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부대, 교육, 보건, 출판도기관, 평양시당, 정권기관, 기업소,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지인의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힘찬 혁명의 새벽길을 헤치시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투쟁업적을 돌이켜보며 목상하였다.

이날 김형직군대학과 사주군, 중앙군에 모신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에도 화환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수령 영생 위업과 시대의 명작들

이 땅에 수령 영생 위업 실현의 위대한 새시대가 펼쳐진 때로부터 어떤 20년 세월이 흘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간직한 우리 인민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불타는 그리움의 정열을 시대의 명작들에 담아 절절하게 터져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 불멸의 업적을 옹호하고 길이 빛내여 나가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의 첫째 가는 본분이고 가장 예스러운 의무입니다.》

지난 20년동안 문화예술부문에서는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찬양하고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감명깊게 형성한 소설, 시,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예술작품들이 나왔다.

김일성조선의 영원한 태양의 역사를 만대대 길이 전하는 이러한 문화예술작품들은 그 내용과 형식의 질적적업성, 형상의 진실성에 있어서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위업들에 대한 추억과 회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서 문화예술의 역할은 참으로 크다. 위인의 역사를 생동하게 재현한 문화예술작품을 보면서 후세사람들은 당대의 위업들과 신념의 말을 나누기도 하고 그들이 살아있었던 같은 현실적인 느낌을 실감하게 된다.

하천만 만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작품들의 사상예술적 특성은 무엇이며 그 문화사적, 사회력사적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 수령님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추억으로가 아니라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 고동치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불멸의 역사로 영생하고계시는

만고절세의 위인이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수령님의 념원과 지향을 안고 영원히 수령님과 함께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가고있으며 이러한 영생의 진리를 사상예술적으로 뚜렷이 확증하는 훌륭한 명작들을 창작하여 김일성민족의 귀중한 정신문화적재보로 길이 전해가고있다.

위인의 업적과 위대성을 칭송한 작품들가운데서 소설과 시가문학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그것은 소설, 시, 가요가 인민대중이 언제나 즐겨 보고 부를수 있는 가장 대중적이며 생활적인 문학예술작품형식이기때문이다.

지난 기간 문학부문에서는 수령영생문학의 대표적작품인 총서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영생》,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평양시공간은 영원히리라》, 《변영하라 김일성조선이여》, 《수령님은 영원히 백두산에서계신다》와 같은 기념비적가치를 가진 문학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수령이 생존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령이 서거한 후에도 수령을 형성한 소설, 시작품들이 보다 왕성하게 창작되고 그것이 수령영생문학으로 보다 발전풍부화되고있는것은 오직 우리 나라 문단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역사 그자체를 생동하게 재현하여 후손들이 지나간 시대와 역사를 잊지 않게 하고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추억의 감정을 되살려주는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의 사상과 뜻을 대를 이어 충직하게 받들어가려는 계승의 의지가 맥박치는 작품이야말로 현실공히 수령의 역사를 줄기차게 흐르는 수령영생의 산 화폭인것이다.

세계문학사의 갈피를 더듬어보면 당대의 위인들이나 성인들을 주인공으로 형성하거나 찬양한 소설이나 송가형식의 시작품들은 많은 경우 개별적인 창작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연발생성을 띠고 창작되었다. 인류가 일찌기 알지 못

하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위대한 시대가 펼쳐진 때로부터 수령영생을 주제로 한 문학창작활동이 목적의식적으로 광범하게 벌어졌으며 그로부터 하나의 독자적인 문학종류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수령영생문학이다.

수령영생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100% 계승하고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과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문학작업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업적을 칭송하는 총서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영생》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음악예술부문에서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혜빛같은 미소 그립습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를 비롯하여 수많은 수령영생송가들과 가요 《우리는 맹세한다》, 합창곡 《백두산이 이야기하라》와 같은 장중하면서도 무거운 시대의 기념비적명작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혜빛같은 미소 그립습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를 비롯하여 수많은 수령영생송가들과 가요 《우리는 맹세한다》, 합창곡 《백두산이 이야기하라》와 같은 장중하면서도 무거운 시대의 기념비적명작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혜빛같은 미소 그립습니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를 비롯하여 수많은 수령영생송가들과 가요 《우리는 맹세한다》, 합창곡 《백두산이 이야기하라》와 같은 장중하면서도 무거운 시대의 기념비적명작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가요 《우리는 맹세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던

우리 인민이 피눈물의 100일을 보내고 힘과 용기를 내어 심장으로 합창하였던 신념과 의지의 노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노래를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 그 유혼을 받들고 당의 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잘 반영된 명목으로 완성시켜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100일을 맞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 여섯신념의 기둥마냥 새겨주시었다. 이 노래는 전당, 전군, 전민을 어버이수령님의 유혼관철로 합일케 불러일으키고 우리 수령님은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 고동치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영생하신다는것을 세계안에서 단언한 유일한 음악포성이었다.

수령영생문학을 심화하는 데서 우리의 미술향은 위력한 수단으로 되었다.

미술부문에서는 조선화 《만민의 태양》, 대형조선화 《피눈물의 해 1994년 7월의 만수대인덕》과 같은 수많은 회화작품들이 국보적인 걸작으로 완성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제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우리네 귀중한 기억을 하였다.

만민의 심장속에 태양으로 영생하는 위대한 수령의 모습과 그 불멸의 역사를 기념비적화폭으로 형성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이렇듯 훌륭한 명화, 수령영생미술작품들은 오직 우리 나라에만 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미술에서 수령영생에 관한 문제는 그 어느 시대에도 론의되어본적이 없었다. 이 세상에 오직 한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최상의 높에서 재현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주체미술의 최고경과, 수령영생미술의 위대한 전대걸작으로 창작완성되었다.

가요 《우리는 맹세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던

수령영생미술창조사업을 발기하시고 그 창조과정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던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여 수령님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불후의 로고에 의하여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시대의 걸작들이 창작되어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명작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혼관철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수령님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새겨주었으며 수령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대로 영원히 살아 고동치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영생하신다는것을 세계안에서 단언한 유일한 음악포성이었다.

수령영생문학을 심화하는 데서 우리의 미술향은 위력한 수단으로 되었다.

미술부문에서는 조선화 《만민의 태양》, 대형조선화 《피눈물의 해 1994년 7월의 만수대인덕》과 같은 수많은 회화작품들이 국보적인 걸작으로 완성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제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우리네 귀중한 기억을 하였다.

만민의 심장속에 태양으로 영생하는 위대한 수령의 모습과 그 불멸의 역사를 기념비적화폭으로 형성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이렇듯 훌륭한 명화, 수령영생미술작품들은 오직 우리 나라에만 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미술에서 수령영생에 관한 문제는 그 어느 시대에도 론의되어본적이 없었다. 이 세상에 오직 한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최상의 높에서 재현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주체미술의 최고경과, 수령영생미술의 위대한 전대걸작으로 창작완성되었다.

가요 《우리는 맹세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던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뜨거운 애국의 마음안고 고산과 수능장능력화장공사에 떨쳐나선 618 건설절벽대 대한들을 성심성의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하느냐.》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마음쓰신 어버이장군님의 유혼을 결사관철할 일념을 안고 건설건설공업성설계정보연구소 설계원리강철, 간석지건설지도국 간석지설계연구소 설계원 한금주, 평양광산공작로동자들이인 리광철, 김남준동무들은 선군시대공민의 본분을 자각하고 들끓는 전투현장에 달려나 가 위훈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셨으며 성의있는 지원으로 대중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시었다.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벽찬 숲길에 심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생을 맞추며 돌격대에 단련한 모란봉구역총합식당 로동자 김금주, 온천군건설의봉사관리소 로동자 리경숙동무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면서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좋은 일을 찾아하였으며 안주사가 내추산관리위원회 리옥순, 강원도충배전부 원산시송배전소 소장 김정수, 강원도제

민관리국 아배단위 부원전혜영동무들도 대규모파일화산기지건설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고산과수능장을 비롯한 여러 대산건설을 다그치고있는 618 건설절벽대원들을 성심성의로 지원하였다.

당의 전투적소호를 높이 받들고 돌격대에 달려나간 리옥순, 아배단위 로동자 리광철, 김남준동무들은 선군시대공민의 본분을 자각하고 들끓는 전투현장에 달려나 가 위훈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셨으며 성의있는 지원으로 대중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시었다.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벽찬 숲길에 심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생을 맞추며 돌격대에 단련한 모란봉구역총합식당 로동자 김금주, 온천군건설의봉사관리소 로동자 리경숙동무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면서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좋은 일을 찾아하였으며 안주사가 내추산관리위원회 리옥순, 강원도충배전부 원산시송배전소 소장 김정수, 강원도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살이 보람과 행복을 누리려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산촌의 밤은 조용히 깊어가고있다. 이천군 산지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리광훈동무의 집은 이 열리며 돌격대제복을 가쁘히 차려입은 처녀가 마당에 나섰다. 따라나선 리광훈동무의 안색이 걱정어린 이으로 물었다.

《예일 이렇게 밤길을 걷는 너를 보니 정말 미안하구나.》

《미안하다니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가느라면 마음이 즐거워만지는걸요. 축산기지가 완공되는 날엔 오빠와 함께 드넓은 풀판을 한 바퀴 돌겠어요.》

그리고는 흥분분히 대문을 나서 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둠속으로 사라져가는 처녀를 바라보는 리광훈동무와 안색의 일교에는 감동의 빛이 어려있었다. 영예군인부부가 고마와하는 처녀, 그는 고려과학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하다가 돌격대로 단련한 김은경동무였다.

지난해 전승절날 아침이었다. 리광훈동무의 집으로 낮모를 치러가게 되었다.

이와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영예군인부부에게 처녀는 세포지 축산기지에서 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이라고 자기 소개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전 일마전에야 영예군인동지 가 이곳에 살고있다는것을 알았습디다. 마침 전승절을 맞고보니 찾아와 축하해주고싶었어요.》

처녀는 가지고은 보약재들과 기념품을 내놓으며 앞으로 친동생으로 여겨달라고 하는것이였다.

이렇게 김은경동무는 영예군인의 가정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돌격대생활의 바쁜 속에서도 영예군인의 집을 찾는 일과 그를 위한 영양성분품을 마련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몸보신에 좋은 토끼고기와 보약재, 산골, 당과류...

영예군인이 입맛이 없어할 때에 는 민물고기과 사과를 구하기 위해 수십리 밤길을 다녀오기도 했다. 방목지에서 방갈게 익은 산딸기를 보아도 그는 소중히 건사해놓았다가 영예군인에게 안겨주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영예군인가정의 귀여운 딸애의 돌생일웃에도 영예군인의 생일상에도, 안색의 포근한 숨웃에도 김은경동무의 뜨거운 진

정이 깃들었다.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총총히 걸음을 옮기는 그에게 종래들은 어디에 가는가고 묻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기쁘게 대답하였다. 오빠네 집에 간다고...

오랜 시일이 흘러서야 김은경동무가 영예군인의 가정을 찾아간다는것을 알았을 때 돌격대원들은 감동에 떨지 못하였다. 그리고 떠났다.

초급단계의 청년동맹원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 대의 지휘관들과 유능한 기술자들이 영예군인의 병치로에 정성을 기울여왔다.

그는 지난 기간에도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을 서슴없이 바쳐왔다. 고려과학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할 때에도 《우리 간호원》이라는 정다운 부름속에 어린시절의 추억과 정서로부러 사람들과 헤어져야 했다. 창건기에서 초고층건물들이 일떠설 때에도 그는 남다른 야근지원돌격대에 달려나가 청춘의 열정을 장그려 바치었다.

김은경동무가 세포지 축산기지에서 건설에 나가 영예군인 리광훈동무와 현연의 정을 맺은 나날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길지 않은 나날에 김은경동무가 걸어온 헌신의 길에는 당의 뜻을 받들어 아름다운 청춘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려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가 깃들여있는것이였다.

신 현 규

국가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창립 60돐기념 과학기술성과 발표회 진행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국가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창립 60돐기념 과학기술성과발표회가 9일과 10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관계부서 일군들, 경공업부문 과학, 교육기관, 생산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3대혁명소조원, 박사원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해외연고자가족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그들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일가분들의 혁명정신을 되새기며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호진일의 아들 제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를 방문하니 친어버이사랑을 안겨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이 가슴에 안겨와 격정을 금할수 없다. 그이의 불멸의 생애는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역사라고 말할수 있다.

령 김일성동지는 가장 훌륭한 수령, 회세의 위인이시이다.

참가자들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 설비들과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실현하며 새 제품을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한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였다.

메트론건설생산공정과 메트론건설의 가운데 대한 연구들을 심화시킨 자료들, 비누용조

합향료의 정제교와 새로운 조성방법에 의한 도자기생산공정확립에 대한 논문들이 참가자들의 판공을 끌었다.

또한 스피리틀리의 배양처리와 그를 리용한 식료품생산방법, 육활생산공정을 확립한 연구성과 등 실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한 논문들이 호평을 받았다.

메트론건설생산공정과 메트론건설의 가운데 대한 연구들을 심화시킨 자료들, 비누용조

해외연고자가족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그들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일가분들의 혁명정신을 되새기며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호진일의 아들 제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를 방문하니 친어버이사랑을 안겨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이 가슴에 안겨와 격정을 금할수 없다. 그이의 불멸의 생애는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역사라고 말할수 있다.

령 김일성동지는 가장 훌륭한 수령, 회세의 위인이시이다.

참가자들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 설비들과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실현하며 새 제품을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한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였다.

메트론건설생산공정과 메트론건설의 가운데 대한 연구들을 심화시킨 자료들, 비누용조

해외연고자가족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그들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일가분들의 혁명정신을 되새기며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호진일의 아들 제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를 방문하니 친어버이사랑을 안겨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이 가슴에 안겨와 격정을 금할수 없다. 그이의 불멸의 생애는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역사라고 말할수 있다.

령 김일성동지는 가장 훌륭한 수령, 회세의 위인이시이다.

참가자들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 설비들과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실현하며 새 제품을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한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였다.

메트론건설생산공정과 메트론건설의 가운데 대한 연구들을 심화시킨 자료들, 비누용조

메트론건설생산공정과 메트론건설의 가운데 대한 연구들을 심화시킨 자료들, 비누용조

해외연고자가족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그들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일가분들의 혁명정신을 되새기며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호진일의 아들 제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를 방문하니 친어버이사랑을 안겨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이 가슴에 안겨와 격정을 금할수 없다. 그이의 불멸의 생애는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역사라고 말할수 있다.

령 김일성동지는 가장 훌륭한 수령, 회세의 위인이시이다.

참가자들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 설비들과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실현하며 새 제품을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한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였다.

메트론건설생산공정과 메트론건설의 가운데 대한 연구들을 심화시킨 자료들, 비누용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문을 보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문을 보내었다.

통지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밝힌바와

같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며 선수들의 경기유연성을 위해 남조선의 인원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큰 규모의 응원단을 보내기로 현대에하여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단의 경기대회참가와 응원단의 파견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7월 15일경 판문점 우 리측 지역 또는 남측지역에서 해당 관계자들의 북남실무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하였다.

일본국회의원대표단 도착

일본국회의원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대표단은 일본의 여러 정당 출신 국회의원들인 중의원의원 마츠나미 겐파, 이시제키 다카시, 사카구찌 나오모, 참의원 의원 시미즈 다카유키, 야마다 다로, 그밖에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성원들로 구성되었다.

비행장에서 마칠수시장을 비롯한 조일우호친선협회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세계인구의 날에 즈음한 토론회 진행

세계인구의 날에 즈음한 토론회가 10일 대동강외교관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보건의료, 생, 중앙기관, 근로단체일군들과 주조 유엔인구기금,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청년들에게 투자하자》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발언들이

독자의 편지

뜨거운 정성이 낳은 기적

지난 5월말 저의 딸이 뜻밖의 일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왕복리 김일성종합대학 영양의학대학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소아집중치료실 실장 신영환 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딸애의 상태를 살펴본뒤 즉시 제혈을 진행하고 치료대책을 세웠습니다. 저는 어린애마냥 부도 한쪽구석에 누워있고있을 기간 하였습디다.

그러던 저의 손을 잡으며 실장신생님은 물론 딸애의 병은 위급하다, 어른들도 이런 상태에 3일을 넘기지 힘들어한다, 그러나 지금 병원의료진단은 최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정성이 지극하면 들우에 두 뜻을 피우셨고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러니 의료일군들을 믿고 신임을 가지라고 절절히 이야기하시는것이였습니다.

이때부터 담당자의 수 문제, 간호장 손윤숙동무들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딸애의 의식을 차릴 때까지 며칠밤을

제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리옥순의 딸이 진전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지에, 전우애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잘 알게 되었다.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천품으로 지니신 그의 사랑속에 많은 혁명렬사들이 값있는 영생을 누리었고 그들의 위훈은 조국상사에 길이 빛나고있다고 경정을 토로하였다.

이밖에 해외연고자가족들은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전국서기장인 케이문드 퍼그슨 공동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오세안지역 회고위원회 대표단이 떠나갔다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30돐에 즈음한 오세안지역회고위원회대

평양역에서 김영환 국가소프트웨어산업총국 부총국장과 룬민 하위-에르네스트 부총국장 시대를대사가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을직한 농촌기계화초병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제2작업반 트락토르운전자 최일관동무는 사회주의협동농에 자기의 순결한 향심을 바쳐 알곡증수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영광의 땅에 부러내린 때로부터 40년간 그는 트락토르와 함께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고있다.

그는 여러가지 공구와 예비부속품들을 넉넉히 마련하여놓고 직접 지수를 감지하여 트락토르의 가동률을 높이면서도 많은 연유를 절약하고있다. 눈발같이 시기와 모내기, 가을걷이시기마다 그는 언제나 이른 새벽부터 남다른 트락토르를 돌리느라 늦게도 하우회회를 어김없이 넘쳐나고있다.

그는 새 세대 트락토르운전자들에게 트락토르의 구조, 성능과 운전리리는 물론 고장이 생기는 원인을 숙지하는 방법도 가르쳐주며 배워주어 그들모두가 농촌기계화초병의 영예를 빛내어 가도록 이끌고있다.

하기에 농장원들은 누가 보건 말던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 위하여 아글라라 에쓰는 그를 가리켜 왕된 농촌기계화초병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로동통신원 한 우 일

제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제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이때부터 담당자의 수 문제, 간호장 손윤숙동무들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딸애의 의식을 차릴 때까지 며칠밤을

이때부터 담당자의 수 문제, 간호장 손윤숙동무들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딸애의 의식을 차릴 때까지 며칠밤을

몽골을 방문하였던 국가소프트웨어산업총국대표단 귀국

몽골을 방문하였던 강영준총 트웨어산업총국대표단이 10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영환 국가소프트웨어산업총국 부총국장과 룬민 하위-에르네스트 부총국장 시대를대사가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제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이때부터 담당자의 수 문제, 간호장 손윤숙동무들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딸애의 의식을 차릴 때까지 며칠밤을

이때부터 담당자의 수 문제, 간호장 손윤숙동무들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딸애의 의식을 차릴 때까지 며칠밤을

이때부터 담당자의 수 문제, 간호장 손윤숙동무들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딸애의 의식을 차릴 때까지 며칠밤을







